

4. 구주의 신원조회(2011년 7월 24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주의 신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구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참 구주 예수님을 더 깊게 사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24:23,24]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지난 시간에 구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에 대하여 성경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비밀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듣는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단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사단은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머리를 상할 자가 올 것이니까 말입니다.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지요. 사단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주가 온다면 사단은 죽어 없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루시퍼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즉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자리를 떠났을 때, 이미 그는 존재를 상실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사람을 속이고 이 지구를 자기 왕국으로 건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왕국에서 영생을 도모할 생각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과 존재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적 존재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떠나서 영생의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주가 오실 것입니다. 사단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주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구주가 오는 길을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보다 강하시지요. 그래서 불가불 구주가 온다면 둘째 방법은 그 구주를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법은 구주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혼동하게 해서 사람들이 구주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고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신으로 섬기게 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면 창조주께서 보내실 구주가 온다고 해도 구주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창조한 천연계의 여러 현상들을 이용하여 그것이 마치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어떤 인격적 존재인 것처럼 믿도록 속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어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의 수단에 아주 쉽게 넘어갔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롬1:19~23,25]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

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이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경배하는 사실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구주를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창조주를 올바로 찾아 경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주를 올바르게 모르면서 구주라고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장 분명한 것은 거짓 구주를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주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거짓 구주를 만들어 속이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계시한 창조주와 구주를 올바르게 찾지 못하도록 성경을 잘못 깨닫도록 하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창조주와 구주를 올바르게 모르게만 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세상에는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거짓 구주도 많이 일어나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구주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말세에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도 역사의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묻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또 거짓 선지자들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 24장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각각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24:5에 거짓 그리스도에 대하여 경고하고 11절에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23,24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속일 것인지 잘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말세뿐만 아닙니다. 아마도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니므롯이라는 구스의 아들도 구주 행세를 한 거짓 구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세상에 임하는 재난과 고난과 질병과 사망이 신이 진노하여 벌을 내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주입시키고 그 신의 진노를 달래야 한다고 우상으로 표상된 신에게 제물을 드리게 하는데, 많은 신전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게 하고 심지어 인신 제물을 드리게 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일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차 없이 형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시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소를 만들게 했습니다. 성소봉사를 통하여 구주가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표상적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선수를 써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이 성소 구조와 아주 비슷하게 만들게 하여 거기서 신의 진노를 달래는 제사를 드리게 하여 구원의 속죄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성소에 대하여서도 오해하게 했습니다.

때가 차서 구주가 세상에 오실 시기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는 유대 나라에 거짓 메시아들을 일으켜서 참 메시아 구주가 오시면 믿지 못하도록 선수를 쳤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10:8)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온 교법사 가말리엘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사백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흠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꺾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흠어졌느니라.(행5:34~37)

이 말을 보면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다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진짜 구주인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취해 놓았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도 가짜입니다. 차라리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인류의 선생이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인류의 구원을 아무리 외친다 해도 그런 곳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인격 수양이나 정신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훈련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숨 쉬며 살아 있는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마음대로 속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진짜 부활하는 생명을 줄 수 없는 사단은 부활은 그냥 장식으로 말할 뿐 영혼불멸론 같은 것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산 사람들이 살아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여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부활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중에 결코 구주가 없는 다른 종교에 대한 말을 하다가 잠깐 걸길로 빠졌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세히 살피면 확실히 알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탄생 방법을 확실히 제시했습니다.

둘째, 탄생 경로를 확실히 제시했습니다.

셋째, 탄생 장소를 확실히 제시했습니다.

넷째, 탄생할 시기에 대하여 확실히 말했습니다.

다섯째, 탄생 때에 있을 일을 제시했습니다.

여섯째, 세상에서 당하실 경험에 대하여 확실히 말했습니다.

일곱째,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이 외에 구원사업 전체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은 탄생하시고 세상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신 후의 일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그 말씀을 드릴 때에 나누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이상의 사실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제시된 방법으로 세상에 오지 않은 사람은 구주가 아닙니다. 어떤 천금 같은 일을 해도 엄청나게 고귀한 일을 해도 구주는 아닙니다. 인류의 사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의 신원조회를 성경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탄생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시간들에 말씀드린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창세기 3:15에서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주가 오실 여자가 처녀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그러므로 순결

한 처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구주가 아닙니다. 구주가 처녀에게서 탄생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미 지난 시간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와 결혼한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스스로 부활하셔서 생명을 드리내실 분이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온다면 그 임무를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주는 아담의 죽은 생명과 상관없는 생명자체로 와야 하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친히 생명의 씨가 되어서 순결한 처녀에게 잉태하여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구주가 아닙니다.

둘째 탄생의 경로입니다.

구주는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의 혈통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서 온 사람은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을 거치는 그 혈통이라야 합니다. 이 사실은 구약성경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롬9:7~13]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 곧 욱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0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히7:14]우리 주께서 유다로 좇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구주 예수님은 유다로 좇아 나셨습니다. 구약에는 “실로”라고 불리는 자가 유다지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실로는 평안을 주는 자라는 뜻인데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인 다윗왕의 계통에서 오셔야 합니다. 이런 경로로 오지 않은 사람은 결코 구주가 아닙니다.

셋째는 탄생할 장소입니다.

[미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구주는 유대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구주라고 하면 다 가짜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헤롯과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넷째는 탄생할 시기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9:24~27을 읽으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내린 때로부터 483년이 될 때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때가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내린 지 483년 되는 그 해였습니다. 그때는 기원 27년입니다. 예루살렘 중건 명령은 기원전 457년에 내렸습니다.

다섯째는 탄생 때에 있을 일들입니다.

탄생한 사실을 알리는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과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민24:17)

당연히 별을 보고 찾아올 동방 박사들의 예물 드릴 일도 이 예언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지요.

베들레헴에 어린이들이 학살되는 일에 대한 것도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7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18 라마에서 슬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마2:16~18)

애굽으로 피난 갈 것에 대하여서도 말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마2:14,15)

탄생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구주라고 하면 가짜입니다.

여섯째 세상에서 당하실 경험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가 아주 자세히 예언했습니다. 좀 길지만 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52:13~53:1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4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15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과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사53:1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9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꾀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10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11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2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 외에 어떤 사람이 이 예언에 부합합니까? 결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53장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시편 16편에 확실히 기록했스비다.

[시16:10,11]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11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두 번이나 밝혔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이고 또 하나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것은 행2:26~32과 13:34~37)입니다.

이만하면 구주에 대한 확실한 신원조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조건에 맞아야만 구주입니다. 이런 조건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구주요 그 가르침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다 사기꾼입니다. 엄청난 사기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사기 치는 것이지요. 아무리 성자의 모습을 했어도 아무리 뛰어난 도덕가라도 구주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분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결코 잘못된 도박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구주이신지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오늘도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결코 속지 않도록 구주를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스스로 속지 않게 해 주셔서 오늘도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